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역대 최대 규모 1500만명 돌파” 전주시, 관광산업 침병 한옥마을 관광지형 바꾼다



한옥마을 관광객 1500만 돌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15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인원을 갱신했다. 이에 전주시는 올해도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을 이어가면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풍성한 콘텐츠 발굴과 관광지 외연 확장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동통신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1536만4206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2022년) 방문객 1129만4916명과 비교해 36% 증가한 인원이다. 이중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만4425명으로 전년 1만5414명과 비교해 4.8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이곳에 집중된 관광산업을 시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관광 유치에 총력을 펼친다. 당장 올해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옥마을에 개관한 전주관광종합안내소를 본격 운영하고, 그간 추진해온 △전주세계문화주간 △전주문화재야행 △전주통장극 공연 △시립극단 공연 △전주예술날장

△전주독서대전 △전주한지페스티벌 △전주한옥마을 특화축제 등을 이어간다.

또 △한옥마을 온라인 및 낭만체험 스탬프투어 운영 △한옥마을 자율거리공연단 및 플랫폼 운영 △한옥마을 문화장터 △한옥마을 방송국 △특별체험단(수공예체험)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도 지속한다.

특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지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다. 지난해 65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던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욱 풍성하게 채워간다.

한옥마을 인근 아중호수로 관광객 유도를 위해 전주관광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시작했다.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아중호수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 기본설계 및 경관성 검토용역을 착수해 아중호수만의 디지털 야간경관 콘텐츠를 구축, 방문객에게 선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완산빙커 - 더

스페이스도 관광지 외연 확장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빛과 조명을 활용한 우주여행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로써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민선8기 대표사업인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완산철보 관광명소화 조성, 덕진공원 명소화 등이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한옥마을에 집중되던 방문객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질 좋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을 넘어선 데다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한 해였다”면서도 “이제는 외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져서 지역 경제에 녹아들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 기자 cawhite@daum.net

“유니콘 키우자” 벤처 투자 20배 ↑↑

충남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지난해 5억→올해 100억 대폭 확대 벤처 투자 활성화 위해 산업은행·벤처캐피탈협회 등과 ‘맞손’ 도

충남도가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 규모를 20배 늘린다.

또 산업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손을 맞잡고,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4일 전안을 위촉한 충남창업마루 나비 대강당에서 국내 최대 투자 유치 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산업은행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태홍 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 오픈노베이션펀드 제안, 도내 스타트업 홍보(IR)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벤처 투자 확

대를 위한 도 출자 펀드 1조 원 조성 △기술 창업 기업 1만 개 달성 등을 골자로 한 ‘벤처 투자와 기술 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했다.

업무협약은 김 지사와 이준성 산업은행 부회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서주원 한국스캐일업팀스협회 회장, 김재광 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송재연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부장 등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벤처 투자 출자금을 확대하고,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억 원에 비해 20배 많은 규

모로,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6%)에 비해 도내 벤처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비중(전국의 2%)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도내 벤처기업(1320개)이 전국(4만 81개사)의 3.3%에 불과한 점도 투자 확대 배경이다.

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 등 1000억 원 규모의 4개 펀드를 정책금융 출자와 연계해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도내 창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캠퍼스 포럼’을 출범하고, 도내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창업 강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연영선 기자 yysun005@hanmail.net

경기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KTX파주연장등 12개 신규사업건의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군에서 검토한 내용 등을 반영한 12개 신규 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 계획, 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5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총 12개로 ▲KTX 파주연장(경의선 연결선), SRT 의정부연장(경원선 2복선화), 수도권고속선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사업 3개와 ▲경강선 연장선, 교외선 단선전철, 경기남부동서횡단선

(반도체선), 포승평택선 복선전철, 포천선 철원선,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 경원선 복선전철, 광주양평선, 통일로선 등 9개 일반철도 사업이다.

‘KTX 파주연장’ 및 ‘SRT 의정부연장’은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혀 없고 경기 서북부는 행선역에서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수도권내륙선 용인 남사까지 연결하여 안전까지 운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경유한다. ‘경기남부동서횡단(반도체선)’은 화성시에서 건의한 노선으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동안,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나는 반도체선을 전국항까지 확장하는 사

업이다.

‘교외선 단선전철’은 기존 철도에 대한 전철화 및 직선화하는 사업이며, ‘포승평택선 복선전철’은 비전철화로 공사 중인 ‘포승평택선’을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은 포승평택선과 서해선간 연결선을 설치하여 서해선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포천선철원선’은 포천~신철원, ‘경원선 복선전철’은 동두천~월정리, ‘광주양평선’은 광주~용문, ‘통일로선’은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회사와 공조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화 기자 ahwa21@naver.com

27만 양주시민과 함께
국제빙상스케이팅장 유치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Yangju 양주시

경북농업기술원, Voice Of Child [福] 복! 소리 나게

백돌이 복(福, VOC)주머니 전달 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사회적 분위기 형성,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 자녀 가산점, 긍정적 인식 변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0일 도의 저출생 전생선포식에 발맞춰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 직원에 함께 힘을 쏟는다.

이철우 도지사는 세계에서도 걱정하는 지난해 우리나라 함께 출산율 0.72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신년 업무보고부터 저출생 극복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 TF를 출범시키

고, 저출생 전생선포식과 함께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과의 전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직장 내부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임산부의 편안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해 임신부 승차 리모텔링 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간다.

또,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백돌이 복(福, VOC)주머니'를 백일과 돌 선물로 전달해 출산을 함께 기뻐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등 육아 친화형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백돌이 복(福, Voice Of Child) 주머니: 백일과 첫돌 맞이 기저귀, 부모 영양제 등 자녀와 부모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은 축하 선물 바구니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경북도의 계획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었던 농촌지도자도연합회와 생활개선회를 비롯해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4-H, 정보화농업인 등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4단체 3만 3천 명 회원과 함께 저출생 극복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자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있는 청년농업인

들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도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저출생의 원인 중 과도한 경쟁,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저유농업과 행복한 가족 교육(가칭)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나비효과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며 "농업기술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극 발굴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다."라고 말했다.

경수국 기자 aas7909@hanmail.net



공주시, 행안부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공주시, '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기관별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데이터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관리체계 ▲공공활용 ▲데이터 분석 ▲역량문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점검 결과 공주시는 구축기축제, 지역

화폐, 생활인구, 백제문화재 방문자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 과제 수행을 인정받아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에도 민간데이터 구매·활용,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배 기자 rfrf40@naver.com

(재)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사장 김기용)이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은 경제

올해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1종·2종 보통)를 취득한 후 서천군에 취업했거나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지역 내 현장실습 후 취업이 예정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오는 10월까지 선착순으로 2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청년 취업 연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응시료, 학원 수강료, 운전연수비용 등 운전면허 취득에 사용한 비용 가운데 1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청년은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류 문의는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일자리지원팀(041-953-1919)에 문의하거나 재단 누리집(http://ssrf.or.kr/)·재단 소식-고시공고-청년운전면허지원사업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덕규 기자 cdk8997@naver.com

고양특례시, 서울시 난점마을 회관 건립 지원 환영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일환 14.5억 편성 이동환 시장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과 지역 상생의 마중물 될 것"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 서울시 관계자, 지역주민이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기피시설 대책 마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올해 본예산에 「난점마을 마을회관 건립 지원」 사업비로 14억 5천 2백만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난점마을 마을회관 건립 지원」은 고양시에 위치한 대표적인 주민 비선호시설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교통과 피해를 받은 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지역상생 및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 해 서울시 공기업무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난점마을 마을회관의 환경개선을 위해 난지물재

생센터 주민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수용한 결과이다. 난점마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 영향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포함된다.

난점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 20일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는 등 준비를 마치고,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대로 조속히 건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35여 년간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우리 고양 시민들이 악취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고 우리 시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며 "금번 서울시의 난점마을 마을회관 건립지원 결정은 인근 4,700여 세대의 덕은 지구 주민들을 비롯한 대덕동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과 지역상생의 마중물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시는 주민 기피시설 대응에 있어 고양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기준 삼아 서울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8기 고양시에서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기피시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를 공약화했고, 전담조직(TF) 팀과 조직과 전담부서(소통협치담당관)를 신설했다.

이러 서울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조율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중지됐던 양 측 공동협의회를 2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또한 지난 11월 수도권 재편(메가시티) 논의를 위한 양 시장 간의 면담 자리에서도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확인했다.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은 "난점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주민협의회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및 서울시 관계자와 수시로 회의와 면담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보상과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동하 기자 byun061@hanmail.net

오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철공원 물놀이장 조성)',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결제시의 건' 등 동의안, 보고 및 의결제시의 건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길용 의장은 임시회 개최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원들에게 부의안건 심의 시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공정(변경) 선거사 무 관리와 엄정한 선거 중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5회 42일 등 총 7회 89일간의 연간 의사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경직 기자 Parkjk0505@naver.com

순천시, 디즈니&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개최

아이, 엄마, 할머니가 함께 듣고 보는 친숙한 애니메이션 OST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봄을 맞아 우리에게 친숙한 디즈니 &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를 오는 16일(토) 오후 4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마법의 멜로디'라는 주제로 서울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지휘자 서경우, 팜소프라노 한아름, 뮤지컬배우 김하연, 뮤지컬배우 송민규 등이 출연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명작 OST 클래식 음악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디즈니와 지브리 애니메이션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폭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다. 영화 속에서 사랑받는 명곡들을 라이브 오케스트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피노키오,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등 디즈니의 감성적인 멜로디를 즐길 수 있는 무대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늘의 옴직이는 성, 천공의 성 라퐁텐 등 지브리 특유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난다.

순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디즈니&지브리 둘의 공통점을 뽑는다면 영상미와 음악이라하며, 실제 콘서트에서 그 웅장함과 감동을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20,000원으로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순천문화예술회관 (061-749-8614)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 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예술이 된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관련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세계로 초대 「스크린 위의 마법」"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jsk6239@daum.net



예천 호명참외 첫 출하, '하니스타'로 아삭하고 당도 우수해

예천 호명참외가 2월 28일 우종규 농가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다.

이번에 첫 출하된 호명참외는 '하니스타'로 아삭한 식감과 우수한 당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종이다.

참외작목반 우종규 회장은 "하니스타는 병해에 취약해 농사짓기가 까다롭지만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6일 파종해 12월 초 정식을 하여 28일 첫 출하했으며 가격은 10kg 상자당 14만 원의 높은 가격으로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거래되었다.

예천군 호명 참외작목반은 20가구로 구성되어 참외 10ha를 재배하고 있다.

참외작목반은 "예천은 황토점질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참외 생육에 적합한 지역이라 앞으로도 작목반의 재배기술과 정성을 더해 소비자에게 더 맛있는 참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호 기자 vann48@naver.com

시대일보

발행·편집인 홍 현 중 편집국장 유 의 호 http://www.sidaiebo.co.kr

본 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7, 2층 편집국: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54번길 24(천마프라자) 대표전화: 1522-3283 편집국: 032)329-9321 광고접수: 032)329-9321 E-mail: sidae1992@nate.com 등록번호: 서울, 가50145 최초등록일: 1992. 09. 28 재등록일: 2020. 08. 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연간 180,000원, 월정 15,000원, 1부 800원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오산시, 최고 등급 '우수기관' 선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고 등급 '우수기관' 선정.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눠 최종 결정된다. 시는 특히 △기관의 자율추진 혁신성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 이용자 중심

의 공공서비스 개선 △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문화소의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야외 상설공연 '공연이 있는 날' 운영과 지역상권 활성화와 누구

나 즐길 수 있는 대표축제로 추진된 '제1회 오산시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등이 있다.

또한 과다 수도요금 발생을 예방하는 '수돗물 서비스', 중장년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함께 on, 희망 on' 사업 등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2023년 도내 유일 신규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이용객 중심의 '국민행복 민원실' 개선, 확대폐하아동 심리·정서 지원사업과 사업체 찾아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과 혁신행정 추진한 점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민선 8기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열린 혁신 행정을 펼쳐 온 노력들이 인정받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오산을 위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박경길 기자 Parkj0505@naver.com



고양시공무원노조, 추경예산통과 요구 성명서 발표.

고양시공무원노조 고양페이, 업무추진비 3월 추경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고양시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혜진)가 4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는 3월에 열리는 업무추진비, 고양페이 등에 대해 추경예산을 반드시 통과 시켜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고양시장과 시의회의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지속하고 있음에 같은 유감을 표하고, 민선8기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사정을 펼 수 없기에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적시했다.

이어 "서로 네 탓만 주장하며 유지한 싸움만 하는 동안 제대로 된 시정은 할 수 없고 당장 고양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고,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며 "100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사정을 펼 수 없기에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고양시는 유일하게 지역페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고통받는 시민은 보이지 않나,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정상적인 부서운영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고양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3월 추경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노조는 "정쟁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경고하며, "시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인 고양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민선8기 이통한 고양시장 취임부터 2년여 동안 예산 등을 둘러싼 끝없는 마찰로 정상적인 시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이통한 시장이 2024년도 본예산 의회업무추진비 등을 10프로만 편성해 보내자 시의회가 시와 시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삭감하면서 두 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하 기자 byun061@hanmail.net

부천시에 장기간 방치된 병원부지 관련

주민들, 특수전문병원 설립 요구 '타용도 불용!'



20여년간 공터로 방치된 부천시 상동 병원부지.

20여년간 공터로 방치된 부천시 상동 병원부지에 특수전문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팽배히 일고 있다.

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주)제이에이치 피에스브이'는 2019년 8월 상동 일대 의료시설용지 2만3천400㎡를 A 의료재단으로부터 매입했다.

앞서 A 의료재단은 2001년 상동신도시 개발 당시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목표로 이 부지를 사들였지만,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당시 A 의료재단은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83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99병상의 어린이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최근 시행사 즉 주택사업 등이 포함된 또 다른 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재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며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악취와 우범지대 전락 등 온갖 민원이 야기됐던 이곳에 또 다시 주민의 의견과 상충하는 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당초 취지를 살려 전문 암센터 등 특수전문병원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메디컬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김모(59)씨는 "지난 20여년간 황폐화된 부지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부지 개발을 주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모(48·여)씨는 "주민들은 이제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병원 건립을 원하고 있다"며 "특수전문병원 등 전문 역할을 갖춘 의료시설이 건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지역시 주민의 뜻과 방향을 같이하는 병원 설립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특수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건립 제안이 들어오면 시로서도 환영할 만한 사업이다"면서 "향후 그 같은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sidae1992@nate.com

민주당, 부천3개선거구 경선 후보 확정... 국민의힘 5일 결과 발표

그동안 잠음 속 각종 의혹으로 경선이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3개선거구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천갑은 3명(김경협·유정주·서영석 현역 국회의원), 부천을 2명(서진웅·김기표), 부천병은 2인(김상희·이건태)을 경선 후보자로 발표했다.

이번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경기도 부천포함 나머지 3차 경선발표를 단행한다면서 부천지역은 경선 없이 단수로 공천하게 될 것"이라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최근 하위 10%에 포함돼, 민주당을 탈당한 원미보 5선의 설훈 의원은 4일 오전 부천시청 비서관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근 기자 sidae1992@nate.com

국민의힘 김종혁 예비후보, 고양시 요양시설 방문 및 격려



김종혁 예비후보.

국민의힘 고양시 병 김종혁 예비후보는 2월 27일(화) 고양시 일산동구 사회복지시설 박애원과 노인복지시설 공경의집을 찾아 시설 현황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격려했다.

김종혁 예비후보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간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애원 및 공경의집 관계자로

부터 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직원과 환우들을 만났다. 한 직원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환우분들께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토로하자, 김종혁 후보는 "요양시설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와 그로 인한 열악한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시·도의회가 '원팀'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상원 경기도의원과 고덕희 고양시의원과 함께 꼭 다시 찾아뵙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종혁 후보는 또한 "인구 100만명의 고양시에는 전체 인구의 약 4% 남짓인 44,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다"며, "우리 고양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해 고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변동하 기자 byun061@hanmail.net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 '가족친화 경영↑↑' 임직원 자녀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이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 축하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며 가족친화경영 강화에 나섰다.

기존에는 매년 동일한 품목의 책가방 세트와 영화관람권을 지급해 왔었지만, 올해부터는 축하 편지와 함께 개인의 개성을 반영해 직접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프트 카드를 지급해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편지를 통해 박 부회장은 임직원 자녀에게 스스로를 '엄마,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저씨'라고 소개하며 친근한 이미지의 캐리커처와 함께 "학교 가는 매일매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학교에서 밝고 씩씩하게 지내라"고 응원했다.

이에 송유리 수석의 자녀인 유다연 양은 "선물 주셔서 책가방 샀어요. 너무 예뻐요. 지도 커서 롯데건설 책임이 되어서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 캐리커처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자녀 후기 이벤트 인증사진 및 답장편지 이미지.

10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답장을 보내는 형식의 후기 이벤트로 11명을 선정해 임직원 가족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호텔 숙박권을 직접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육

아에 대한 고충 및 회사 복지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에는 평창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스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족여행 프로그램' 진행해 임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5월에는 가정

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서는 카네이션을 어린 자녀에게는 간식세트를 선물하고, 6월과 9월에는 가족과 함께 현충원 묘역을 참배하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프로그램인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와 여성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2년 가능,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 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그 대상을 임직원 가족까지 넓혀서 롯데건설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초심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돌봄 휴직제, 자녀입학돌봄 휴직제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후 2023년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수거와 세탁, 배달까지

경기도 블루밍(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6월 파주에 설치



안산시 개소식.

기름때나 약품 때문에 일반세탁소 이용이 어려운 공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천원에 세탁해주는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안산과 시흥에 이어 파주시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파주시가 최근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는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했

다며 부지선정,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는 경기북부에서 산단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는 파주 산단 인근에 설치돼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파주시에 14

개 산단에 632개 업체, 약 2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세탁소는 영세·중소사업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장당 500원), 동복은 2천 원(장당 1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거와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역상공회의소와 노동단체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 파주점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가 문을 열면 열악한 경기북부 소규모 사업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북부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북부지역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가정 내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사업을 계획, 지난해 안산시(7월), 시흥시(11월)에 세탁소를 설치했다. 지금까지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안산, 시흥)는 총 187개 업체 2만 2천여 장의 세탁물을 처리했다.

이동화 기자 ahwa21@naver.com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첫 발

충남도, 관리지침 교육 실시...보조금 관련 교육 및 관리 강화방안 공유

충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4일 농업기술원 교육복지관에서 실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 및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 지방보조금 전반사항에 대한 지침 교육과 더불어 보조금 감사사례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전(全)단계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도는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 시 부정수급 적발사업 폐지·예산 삭감, 유사·중복 사업 폐지·통폐합 및 집행 시 단계별·체

계별 관리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및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실과·시군 보조금 관련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편화(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을 통해 모니터링 된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

한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과 연계해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특별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시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부서-감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실과부서와의 지속적인 상호 의견 수렴 및 공유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민식 도 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체계를 효율화해 부정행위를 줄일 것"이라며 "지방보조금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영선 기자 yysun005@hanmail.net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 실종신고 보다 한발 앞선 'CCTV 실시간 관제'



CCTV 속 경찰이 출동해 실종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모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스마트 안전센터의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치매어르신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일산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28일 스마트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치매어르신 안전 귀가에 도움을 준 관제사에게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2월 4일 19시23분경 CCTV 실시간 관제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발견하여 길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찰서에 출동요청을 했다. 출동결과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배회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 시켰다.

해당 사건은 가족의 실종신고 보다 한발 앞선 스마트안전센터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 대응한 것으로 상황전파 신속대응 체계를 보여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는 시 공무원 6명, 경찰관 3명, 관제요원 37명이 방법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에 활용되는 CCTV 9,126대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하여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변동하 기자 byun061@hanmail.net

예산군,

예당저수지 수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예당내수면어업계 환경정화활동 모습.

예산군 예당내수면어업계(계장 박지영)는 지난 28일 50여명이(대흥면 5명, 예산군자율방재단 5명, 마을회 10명, 어업계 30명) 예당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업계원 소유 배 5척을 동원해 수변가에 널린 잡목과 생활쓰레기를 약 7톤을 수거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무한천 및 신양천 상류로부터 유입돼 수변부에 떠 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수산환경을 보전하고 예당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지영 예당내수면어업계장은 "새봄을 맞아 예당호 및 뉘시터 주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즐기게 하고 토종붕어, 피라미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에서는 예당내수면어업계와 함께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당호 관광지를 가꾸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영선 기자 yysun005@hanmail.net

용인시, 올바른 손 씻기 습관 확인하는

'뷰 박스' 무료대여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뷰박스 이용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병·의원, 집단급식소 등 예·초·중·고등학교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다. 이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수칙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질병과 A형간염, 식중독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시는 신중한 기관에 약 3일 동안 '뷰 박스'를 빌려주고, 형광 로션과 교육 책자를 함께 제공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용인특례시 내 3개구 보건소(처인구보건소 031-324-4766·기흥구보건소 031-324-7963·수지구보건소 031-324-8498)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알려주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뷰 박스'를 교육과 의료기관에 빌려주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손 씻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 눈으로 효과도 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cdolls@naver.com

이천시, 시민의 마음까지 녹이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엉파' 설치



온열의자.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월부터 유산리, 양정여고, 장호원을 포함한 13개소 버스승강장 내 기존 의자를 철거하고 3월 12일까지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온열의자 설치 대상지는 2023년 주요 민원 사항과 급년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하였다고 전했다.

이천시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사업계획에 따르면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 대상은 총 615개소로 그중 기설치된 온열의자는 315개이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

을 도모하고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열의자를 추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관내 총 328개의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시민들은 한파에도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장호원버스터미널 근처에 거주 중인 박씨는 "다른 데에서 온열의자 이용해봤을 때 우리 집 앞에도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도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게 되어 좋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cdolls@naver.com

예천군, 개학 시즌 맞아 위생 수칙 준수 당부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개학을 앞두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의 적절한 보관, 관리, 섭취 방법과 올바른 손 씻기 등의 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병할 수 있고,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는 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물 끓여 마시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조리 후 칼도마 소독하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근후 기자 vann48@naver.com

세종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단지 모집

4월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된 공동주택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예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 3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단지에는 각각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입주민 및 관리주체 대상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 게재된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단지를 모집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 게재된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단지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사우이센터, 공동주택 자체대장을 토대로 소음 민원 발생 건수가 높은 순으로 시범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보완해 단계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본성 기자 gbs8070@naver.com

서천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부동산거래 신뢰성 기대

서천군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명찰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3개소 가운데 28개소가 참여하는 이번 제도에 군은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착용토록 하여 부동산 사기 등으로 인

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으며,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은숙 군 민원직적과장은 "전세 사기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덕근 기자 cdk8997@naver.com



이새날 의원.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발의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 지난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안 학교 부지 이전 지원대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제3국

나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북한배경 청소년은 한국의 사회문화를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질성에 따라 학습 결손을 비롯하여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배경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는 등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정 범위 확대, ▲대

안학교 부지 확보,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등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출생지 또는 경제, 사회적 배경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앞으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형구 기자 sidaeseoul@daum.net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장흥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5건의 승인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고,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안을 처리한 후 일정을 마무리한다.

왕윤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민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sgo21@daum.net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 및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월 22일 서울시 재향군인회관에서 개최된 '서울향군 제66차 정기총회'에서 재향군인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감사패도 수상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지난 2023년의 활동 공유와 2024년 주요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용호 시의원, 구미경 시의원, 신복자 시의원과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장, 배강영 강남구재향

군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재향군인회 발전과 전후세대 안보전략 사업 지원, '서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 등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장으로부터 유공 감사패를 수상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자문

위원 위촉과 감사패 수상은 큰 영광이다"며 "자랑스런 회원님들께서 군 복무 중 헌신과 희생, 애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정회원 17만 2,458명, 일반회원 205만 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군 복무를 마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자원봉사, 6·25 참전자 생계보조



김형재 의원.

비 지원,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강형구 기자 sidaeseoul@daum.net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동대문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최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월 4일 11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했다. 제327회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개최하며 결산감사위원 선임,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 구

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3월 8일(금)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구정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정성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 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대전시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번 조례



송인석 의원.

안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길기배 기자 rfrlq40@naver.com

태안군의회,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현장 확인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기 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위해 대상지 사전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이날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 전원은 대상지 3개소[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 교육체육과 소관 '남부권(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변경) 토지매입',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매입']를 방문하여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심도 깊은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의 문제점, 위치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부지 선정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했다. 현지 확인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현장확인 사진.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모두 고려한 매입대상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현지 확인을 나서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태안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한다. 심의 중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추가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성철 기자 jsc2849@naver.com

당진시의회,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

당진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32호는 주변 산업단지의 자원 수송과 물류를 담당하며, 일일 교통량이 3만 대를 초과하는 심각한 포화 상태에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32호 대체 우회도로[정미-송악]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촉구에 나섰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국도 32호 도로는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사망사고 8건, 중상사고 111건, 총 1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진시는 지난해 인구 17만 명을 돌파해 7조 1천억의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



김덕주 의장.

지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새로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해당 국도의 교통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상연 의원은 "도로 안전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자원 운송과 물류 차량을 우회도로로 유도하는 적절한 교통량 분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성철 기자 jsc2849@naver.com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과의 소통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지난 29일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지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조례동 한양수자인과 남해오네트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향후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 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자전거 문화센터, 어린이 교통공원에서는 시설 점검 후 교차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순천만국가정원 내 남문게이트, 꿈의다리 등 재개장 추진현장을 방문해 준비기간이 촉박하더라도 정당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다가오는 4월, 차질없이 재개장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배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순 기자 jsk6239@daum.net



경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경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 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봄꽃 피기 전, 우리 동네 깨끗이~

노원, 2000여 명 참여하는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 운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깨끗한 우리동네, 노원의 얼굴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후변화로 이른 봄꽃 소식이 전해지면서 3월 시작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산과 힐링 명소들을 방문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구민의 쾌적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로 지정된 3월 14일(목)에는 주민 자율 청소문화 정착을 위한 '쓰담운동이' 함께 전개된다. '플로깅(plogging)'으로 익숙한 '쓰담운동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참여자들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

이다. 구는 연중 상시로 쓰담운동을 전개해 청결도시 노원을 위한 문화구민으로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신청한 가족단위, 동호회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중 주민센터 또는 자원순환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후변화에 맞추어 청소행정계획도 앞당겨 수립했다. 매년 3월 넷째 주로 지정해 운영하던 <대청소 주간>을 둘째 주로 옮겨 지역 내 주요도로, 뒷골목, 등산로, 산책로, 녹지 및 공공시설에 겨우내 쌓였던 쓰레기를 집중 청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일로(8.27km), 노해로(1.11km), 상계로(3.21km)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분진흡입차(4대), 살수차(6대), 노면정수차(3대)를 투입해 차량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노원역, 상계역 ▲지하철 고가 하부 역시 살수차(각 3대)를 이

용해 비둘기 배설물 등을 꼼꼼하게 세척한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어르신클린지킴이단'을 비롯해 동네 지리에 밝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동별 청소 취약지역을 정비한다. 평소 청소 손길이 닿기 어려운 ▲피복지, 등산로 및 산책로, ▲근린공원도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수거하고 노후화된 수목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21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최우수', 2022년 평가에서는 '우수'로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며 체계적인 청소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화구민으로서 자긍심은 바로 깨끗한 우리 동네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구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도시청결도가 곧 도시의 품격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쓰레기 없는 청결한 지역 조성을 위해 노원구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청회 기자 mc355@naver.com

강북구-한국잡월드, 강북형 미래인재 육성에 두 손 맞잡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왼쪽)이 강북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9일(목) 업무협약을 맺고 강북구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직업체험관이다. ▲어린이 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진로설계관 ▲숙련기술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간 방문객이 70만명에 달하는 등 매년 전국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이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직업 탐색을 통한 진로 설계와 올바른 직업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강북구 내 초등학생 172명에게 한국잡월드 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체험관 만족도는 88%, 재참여의사는 9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지

속적인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9일(목) 한국잡월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양 기관은 ▲강북구 내 학교의 한국잡월드 이용 예약 협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직업체험 교육 지원 ▲전시·행사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기타 사회공헌 행사 등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한다.

한편 구는 오는 4월부터 지난해 대비 약 9배 확대한 1,600명에게 한국잡월드 체험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내 14개교 초등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잡월드와 함께 더욱 내실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체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 시대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청회 기자 mc355@naver.com

관악구,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쾌거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3개 항목 10개 지표 기준으로 평가

관악S밸리 조성, 주민과의 소통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이 평가받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혁신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혁신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3개 항목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총 3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주민소통 정책화 성과 ▲민관 협력 활성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영하브인 관악S밸리 2.0을 조성해 '경제혁신'을 추진한 노력, 주민과의 '소통 혁신'을 위한 다양한 채널 마련,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 운

영 ▲장애인 이동권 강화사업 ▲자원순환동아리 운영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민관협력으로 풀어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부동산중개업 ONE-STOP 시스템 ▲주차차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인공지능(AI) 챗봇 운영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서비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등 디지털플랫폼 구현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한 점에서도 인정 받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리 구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하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혁신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행구 기자 sidaeseoul@daum.net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재료 맛 표현 동시화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구로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2024년 식재료 맛 표현 동시화 공모전 수상작으로 총 16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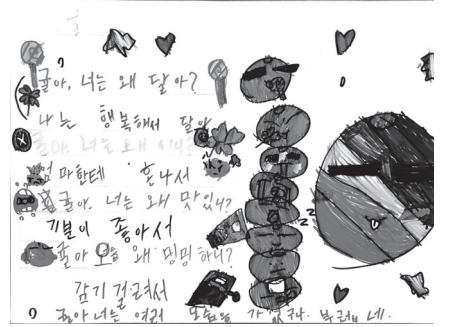
2024년 식재료 맛 표현 동시화 공모전은 식재료에 대한 맛을 표현하며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언어 자극을 통해 언어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식품에 대한 친근감 형성을 통해 편식을 예방,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구로구 내 센터 등록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학생 1~3학년생 대상으로 진행했다.

19개소가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동시화의 독창성 △표현 예술성 △식재료에 관한 표현 △동시와 그림의 조화 △어린이 참여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개소를 포함해 총 16개소가 선정됐다.

심가지역아동센터의 '꿀'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꿈의학교지역아동센터의 '겨울이면 생각나는 딸기', 천왕술우리동네키움센터의 '배를 찾아서', 향동울림형우리동네키움센터의 '주황 납땀'이 최



2024년 식재료 맛 동시화 공모전 대상 수상작(심가지역아동센터 '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구로구는 (사)대한영양사협회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 관리, 식품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다.

구로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약 298개 회원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영양 관리, 식품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다.

강행구 기자 sidaeseoul@daum.net

청년예술인 위한 독주회 '2024 더 임팩트!'

송파구, 11일까지출연자공모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들을 위해 마련한 독주회 '2024 더 임팩트'에 함께 할 출연자를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더 임팩트'는 공연예술계의 유능한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공연을 통해 구민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를 이끌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하였다. 지난해 첫 사업에는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는 17명의 우수한 청년예술인들이 총 13회의 빛나는 무대를 선보여 1,052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는 구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간다.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민 중 국악 혹은 서양음악(클래식) 전공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공연 특성상 팀이 아닌 개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접수 기간 내 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및 동영상 심사, 2차 실연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한다.

공연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진행되며, 총 20회 공연이 진행된 후 연말에는 모든 출연자가 함께하는 협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석촌호수 아뜰리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청년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며 "올해도 '더 임팩트'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구민 일상 속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송파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강행구 기자 sidaeseoul@daum.net

금천구, 지중화사업 추진

학교 통학로 안전 지킨다... 공모 선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정부지원 지중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한전 및 통신사 부담금을 포함해 총 136억 원(국비 32.7억, 시비 24.5억, 한전 및 통신사 부담금 78.6억)을 확보했다.

지중화 사업은 공중선(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립하고, 보도 위 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간은 문성초(시흥대로 446~150길 6 양측, 총연장 0.5km), 영남초(문성로 52~72 양측, 총연장 0.7km), 동일여고(금하로 749~739, 양측 총연장 0.7km) 통학로다.

해당 구간은 4차선 이상 도로와 연결

되고 인근에 여러 학교가 모여있어 유동 인구가 차량 통행이 많지만, 전봇대와 공중선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36억 원과 구비 72억 원 총 208억 원을 투입해 사업 구간 내 난립한 공중선을 매립하고, 전주 59개, 통신주 12개를 철거한다.

4월 중 한국전력 및 각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구간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는 지금까지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6월까지 정충단지 구간이 마무리되면 시흥1동 우재국부터 독산4동 교차로까지의 독

산로 1Km 구간은 공중선과 전주 없는 걷기 좋은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하게 된다. 독산로에서 현대편 판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김씨는 "전신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간판과 매장이 잘 보이고, 독산로를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늘어난 것 같아 매출 인상이 기대된다"라며, 지중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금까지 추진한 독산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게 된 통학로 구간은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 주요 도로로써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강행구 기자 sidaeseoul@daum.net

도봉구, '구청장의안전한바퀴'로

안전 문제 신속 파악·해결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어나겠습니다"

지난 29일 오전석 도봉구청장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 취약시설,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찾았다. 관련 부서 직원, 자율방재단과 함께 나선 이번 점검은 지역 내 공사 현장 등을 확인하고 만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전석 도봉구청장은 도봉2 재개발구역 아파트 공사 현장과 산지방재사업 대상 지역(도봉동 288-3)을 찾아 안전관

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균열 및 인접 건축물 영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오 구청장은 "공사장 흠막이 변형, 토사 유출 예방과 비탈다듬기·위험수목정비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해빙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 위험요소를 관리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도봉구는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 11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며, 산사태 방지를 위해 우기 전 모든 공사를 끝내는 목표로 산사태 예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재난 안전을 구 핵심전략으로 삼향 설정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사업을 시행한다.

'구청장의 안전 한바퀴'는 구청장이 직접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 구민 안전 위험요소들을 즉시 파악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성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동대문구, 여성 청소년·저소득층 대상

HPV 무료 예방접종 실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병원체 중 하나로, HPV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과 항문 생식기 사마귀, 호흡기 유두종 병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HPV로 인해 유발되는 주요 질환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어 감염되기 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HPV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이다. 2006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백신은 서바릭스(HPV2가), 가다실(HPV4가)이며, 1차 접종을 15세 전에 받을 시 총 2회, 15세가 된 이후에 할 경우엔 3회 접종을 해야 한다.

정성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화성시, 취업부터 창업까지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첫걸음



청년취업끝까지센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월 개소한 '화성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취업특강과 창업교육이 청년

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으며 센터가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먼저 센터는 경쟁이 치열한 창업 시장

에서 청년들이 버티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스타트 교육을 시작해 △창업트렌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온라인마케팅 △판매전략 및 고객응대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센터에서 준비한 교육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이렇듯대로 청년들의 취·창업에 끝까지 지원해주는 센터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창업에 애로사항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창업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하여 이현웅 YTN 아나운서의 '신

뢰감 있는 목소리 만들기'특강을 시작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취업특강 및 개인별 취업상담 △인·적성 검사 및 NCS 교육 지원 △AI면접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는 지역특화 반도체 사업과 기업연계 직무현장실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며, "맞춤형 컨설팅, 단계별 창업 교육 등을 통해 화성시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길 기자 Parkjk0505@naver.com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탐동지구 조감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를 응모했다.

'오가노이드(Organoid)'는 장기를 뜻하는 'Organ'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접미사 '-oid'의 합성어로 '유사 장기'로 불린다. 장기와 유사한 세포로 구성된 오가노이드는 신약 발굴, 장기 이식 등 여러 방면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로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공모한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는 동수원(광교 지역), 서수원(탐동지구) 약 56만㎡를 오가노이드파크로 조성해 동수원은 광교 바이오노베이션밸리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인

력양성 기지로, 서수원은 탐동지구를 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대학교 종합병원, 광고 테크노밸리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수원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수원시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수원시에는 현재 바이오 기업 218개가 입주해 있고, 레드바이오 R&D(의료·제약 분야 연구개발단지) 중심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원시 경기 남부 바이오산업의 거점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의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안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동화 기자 ahwa21@naver.com

부천시,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

맞춤형 지원강화로 미래 이끌 혁신기업 참여 유도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해 3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등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비 지원 대상인 3개 기업이 선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기업인 Pre-Star 기업선정으로 3,800

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부천시 기업은 스타기업에 선정됐을 때 도비 3,800만원까지만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 도비매칭투자 참여로 시비 포함 최대 7,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라 시제품 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관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스마트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 선정 대상은 공고일(2월 20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주사무소나 등록공장이 있고,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2022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선택조건은 공고문 참고)

지원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이번 사업참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미래를 이끌 혁신기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zbiz.or.kr)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백재근 기자 sidea1992@nate.com

동네복지마스터생킨다

광명시, 온 동네 복지관 추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종합사회복지관 조직을 기능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일 평생학습원에서 '온 동네 복지관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광명·철산·하안)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1간 1동 1복지관 네트워크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조직화를 활성화해 주민 복지 욕구에 즉시 대응하는 복지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명인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은 동 중심 복지 실천으로 복지의 빛을 밝히고, 동시에 광명시 온 동네에 복지관이 스며들어 지역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온 동네 복지관 사업추진에 따라 복지관 조직을 개편해 각 동을 전담하는 팀이 새롭게 구성됐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역밀착팀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동별 사회복지사를 매칭하였으며,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철산1·4동팀, 철산2동팀, 철산3동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는 하안3동팀, 하안동팀, 소하동팀이 구성돼 각 동을 담당한다.

각 팀에는 동별 전담 복지사가 배치돼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복지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복지관은 네트워크를 체결한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업과 동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해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별 특성화 사업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그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관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면서 주민의 복지접근성이 향상되고, 복지관과 동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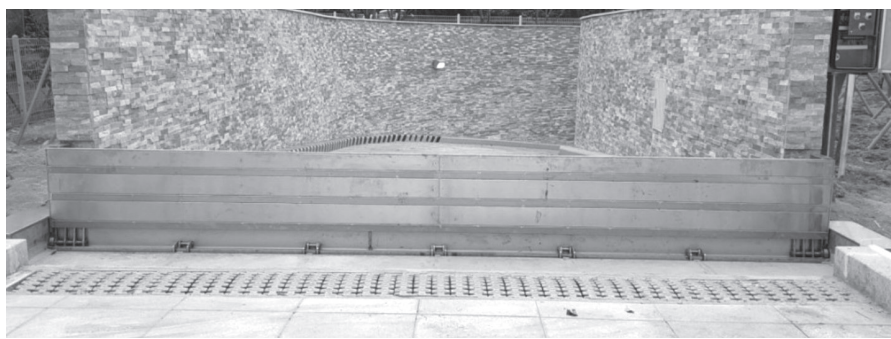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동 단위로 총동원하여 유익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새로운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복지관과 해당 동을 1대1로 매칭하는 네트워크 체결식이 진행됐다.

신동주 기자 maha2009@hanmail.net

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해야



자동식 물막이판 작동사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임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턴 설치 등의 무후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cdolls@naver.com

"청년이 묻고 현직자가 답하다"

안양시, 청년 위한 플랫폼 '올큐' 구축

안양시는 청년들의 진로, 대학, 경력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라인 플랫폼 '올큐(ALL Question)'를 구축하고 4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플랫폼은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청소년이나 청년이 고민을 상담하면 해당 분야의 현직자가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다.

16세부터 39세까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 활동을 하는 청소년, 청년이면 누구나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진로 및 취업, 직장 실무, 법률 등에 대해 상담하면 연계된 취업플랫폼에 등록된 관련 현직자가 상담해주고, 실무취업 고

민 상담사례 열람이나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분석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안양청년인재'로 등록된 청년이 전문분야의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먼저 경험한 전문가들이 방법을 모르거나 용기가 없어 망설이는 청년의 길잡이가 되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을 위한 지원은 안양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고, 청년 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청년 개인의 역량 강화와 도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봉근 기자 cbm9988@naver.com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군포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기공식.

군포시는 지난 2월 29일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조성되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은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개선과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포함 총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1층(연면적 3,751㎡)에 총 116면 규모로 2024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은 당초 철골구조 공작물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시설물의 안전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 변경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2월 첫 삽을 뜨게 되었다.

구준희 기자 sdsilbo1111@nate.com

여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7일 원도심 시장 관계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진행하였다.

이날 견학은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힘쓰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협의체(대표 김부열) 소속 시민들과 한글시장상인회(회장 박시우), 세종시장상인회(회장 이재욱), 강변상인회(회장 류혜정) 임원들이 함께 경북 최대시장인 안동시장을 견학하였다.

안동시장의 5개 상인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명품시장,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유지

한 과정과 다양한 도전 사례를 듣고 여주 원도심 시장에 적용해 볼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특화된 거리로서 안동찜닭, 떡볶이,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공유스튜디오, 통합배송센터 ▲안동떡거리 체험과 공동작업을 위한 공유주방 등 현장을 둘러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장협동조합 성공을 통해 공유자산을 지속적·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김명희 기자 cdolls@naver.com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의 선도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 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총 3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후테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와 고

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Business Model) 고도화, 대·중견기업 및 경기지역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로써 스타트업들은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청(www.gg.go.kr/), 경기창조혁신경제센터(ccci.creativekorea.or.kr/gyeonggi/), 판교창업존(pangyozone.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화 기자 ahwa21@naver.com

영덕대게축제에 '8만 인파' 동해안 대표 겨울축제 우뚝

'착한 가격, 안전, 친환경' 등 성숙한 운영·관리 돋보여 꽃샘추위 뚫고 전국 축제 트렌드 지수 2위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영덕 대게축제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강구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영덕대게축제는 '천년의 맛, 모두의 맛'을 슬로건으로 축제 참여자 누구나 영덕대게의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다만, 축제 첫날 비와 추위로 인해 대게 원조마을인 차유마을에서의 안전지원제가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고 개막을 여는 대게거리 퍼레이드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새롭게 마련된 본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등이 축제장을 풍성하게 채워 방문객들을 마음 사로잡았다.

먼저, 축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영덕대게 낚시'는 성인과 어린이 체험장을 구분해 체험장을 대폭 확장한 점이 큰 호평을 얻어 실시 횟수를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매시간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인기 프로그램인 '대게 신고 달리기',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미니 축구게임'을 비롯해 대게 줄 당기기, 대게탈 추구 등도 표를 구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축제엔 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CJ에디원과 콜라보로 '게살 핑거푸드 시식회'가 펼쳐져 게살 차우더 수프를 비롯한 총 4종의 메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레시피로 매일 600인분 이상 무료로 제공돼 축제 참여자들을 미식의 세계로 초대했다.

'영덕대게 맛 체험'도 일반적인 대게집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대게 요리를 선보였으며, 각 읍면 먹거리 부스 역시 대게라면, 대게국수, 대게육수어묵, 대게과전, 대게비빔밥 등 마을별로 특화된 음식을 내내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이외 올해 처음 도입한 '스텝 투어'는 축제장 내부 체험과 지역 관광지 방문을 함께 유도해 축제의 지역 기여도를 높였으며, 축제 정보 안내와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실시간 방송 시스템은 축제의 편의성을 개선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영덕대게축제는 종합적인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안전 운영, 바가지요금 근절, 친환경 실천'을 최우선 목표로 실천해 30여 년 이어지던 축제의 전환

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영덕군과 축제추진위는 영덕경찰서, 영덕소방서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와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사고 걱정 없는 축제를 실현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축제 14일 전 대표 먹거리 메뉴와 가격을 공시하고 축제 현장의 모든 부스에 판매 품목 가격을 기재한 안내장을 비치해 비용이 약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하나의 도약은 친환경축제 시도로, 읍면 먹거리 부스 등에 다화용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해 시행토록 권고하고, 내년 축제부터는 이를 전면 확대해 친환경축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은 "좁은 축제장의 한계로 축제를 위해 몰려오는 관광객들의 20%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수용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며, "내년도 대게축제는 사전 매표 시스템 도입 등 올해 축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방



영덕대게축제.

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는 무엇보다 축제를 방문하는 누구나 영덕대게를 맛보고 갈 수 있도록 힘썼다"며, "영덕은 계절

마다 맛있는 특산물이 나고, 자연도 아름다운 곳이니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빅데이터를 분석해 트렌드 지수를 발표하는 랭크파이는 올해 2월 2주차

전국 축제 트렌드 순위에서 영덕대게축제를 2위로 꼽은 바 있다. 해당 지표의 10위권 안에는 진해군항제 등 국내 굴지의 축제들이 포함됐다.

성우섭 기자 19860518@hanmail.net

울진군, 물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총력



맑은물사업소 사진설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고품질 수돗물 공급과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에 상수도 시설개선사업과 통합상수도 설치 사업 등의 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총력**
(울진정수장 배수지 확장, 지방상수

도 현대화사업)

울진군은 상수도 배수지 체류시간을 확보하고 급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울진 정수장 배수지 확장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이 확장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기여 할 전망이다.

또한 357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스마트미터링, 자동수질, 재업소투입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시간 수돗물 수질 정보 제공과 수도관 내 침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 했다.

이 밖에도 북면 나곡5리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총사업비 80억원으로 북면 배수지 신설 1개소, 송배수관로 설치, 송배수가압장 2개소 설치 등을 진행 중이며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신뢰 구축을 위해 울진군 수도정비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 관리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효율적 수질관리로 운영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합 등)

울진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

급을 위하여 8개읍·면 79개소(마을상수도 8, 소규모급수시설 71)의 소규모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진군 금강송면 등 지리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주민의 고통화로 인한 관리인력 부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 불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울진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 운영·관리되고 있는 물 이상의 소규모수도시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울진군 지역 관리로 안전한 수질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은 작년 행정안전부 공모'2023년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에 『금강송면 삼근2리 3개 부락(새점, 방촌, 신방) 소규모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수질관리 개선』을 주제로 응모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18억 중 4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이다.

또한 2024년도 전환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9,200만원 중 3억4,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금강송면 광화2리(옥방, 죽터골, 불미골) 마을 통합상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국가보훈부 공모사업 선정 독립운동 교육부터 영상제작까지 독립유튜버를 양성한다!

의왕시청소년재단 포일청소년문화의집이 국가보훈부의 2024년 보훈 테마활동 공모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포일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프로그램 '이제 나도 독립유튜버'는 독립운동 교육부터 영상 제작 교육, 숏폼 공모전 출품까지 청소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독립교육에 영상이라는 흥미와 친숙함을 더했다.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 5학년부부터 중학생 청소년 15명을 모집해 9월까지 22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과 영상 제작 기술, 나만의 작품 제작, 공모전 출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3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안에는 교육 외에도 외부 행사 참여, 이벤트 운영, 영상상영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다.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참여형 프로그램이 아닌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에 개관한 포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웹툰 특성화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동아리실, 아파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인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승훈 기자 sdsilbo1111@nate.com



포일청소년문화의집.



故 황금자 할머니 모습.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함께 기린다. 위안부 피해자인故 황금자 할머니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본인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지 올해로 10주년이 됐다.

이에 맞춰 구는 황금자 할머니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다양한 유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앞서 구는 그동안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강서구 출신 독립운동가인 상산 김도연 선생의 공훈 선양 행사를 가졌다.

또, '강서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강서 유수지 공원(강서구 양천로 311, 옛 마곡 빗물펌프장)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황금자 할머니·상산 김도연 선생·평화의 소녀상 강서구, 3.1절 105주년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

◆ **故 황금자 할머니 10주년 추모기념 전시회... 송고한 기부정신 기려**

3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구청 1층 로비에서 '故 황금자 할머니 10주기 추모기념 전시회'가 개최된다.

별세하신지 10년이 지났지만 황금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기부의 의미와 감동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전시회명은 '기부로 세상을 밝히고 빛이 된, 황금자 할머니'. 이번 전시회에는 유품과 일대기를 담은 사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할머니가 입으셨던 한복과 노리개, 명함, 지팡이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할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통장과 도장, 핸드폰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사후에 모든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는 내용의 유언 증서도 직접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상 대상(2007)」, 「국민훈장 동백장(2011)」,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등 각종 상패도 함께 전시된다.

황금자(1924.4.20.~2014.1.26.) 할머니는 13살 때 길을 가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흉남의 한 유공장으로 끌려갔으며 3년 뒤 다시 간도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

광복 후 고국에 돌아와 길에서 떠도는 아이를 양녀로 삼고 키웠으나 10살 때 죽어 다시 혼자가 됐다.

당시 겪었던 큰 상처로 인해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 빈병과 폐지를 주워 팔면서 어렵게 살아오다 1994년 강서구 등촌3동 임대아파트에 보금자리를 얻으며 강서구와 인연을 맺었다.

황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을 쓰지 않고 평생 모은 돈 1억 7천만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재)강서구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 **2.8공원과 사귀정적... 상산 김도연 선생 새롭게 조명**

"모든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2.8 독립선언서 일부)"

지난 2월 8일 강서구 가양동 2.8 공원에서 만세삼창이 울려 퍼졌다. 강서구는 2.8 독립선언 105주년을 맞아 김도연 선생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영장동 출신 독립운동가 상산 김도연 선생의 송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였다.

구는 기념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김도연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김도연 선생 공훈 선양 기념행사.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 **마곡 유수지에 강서평화의 소녀상, 열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희생 기려**

구는 2019년 강서 유수지 공원(강서구 양천로 311, 옛 마곡 빗물펌프장)에 '강서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故 황금자 할머니를 비롯해 강서구에 거주하셨던 열두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자 조성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전시회가 황금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기부의 의미와 감동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송고한 뜻과 애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강서구와 관련된 인물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행규 기자 sidsaeoul@daum.net

구미산업단지의 젓줄 낙동강...힐링 공간으로 ↑↑

낙동강 수변공간 다양한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시민 큰 호응 무미건조한 회색 도시 탈피...낭만 문화도시로 탈바꿈

구미시는 구미산업단지의 젓줄인 국가 하천 낙동강 수변공간에 최근 다양한 관광·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낙동강은 구미시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5개의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풍부한 용수를 공급해 왔으며, 구미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보고다.

구미는 민선 8기 출범 후 그동안 산업도시로 무미건조한 회색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일상이 행복이 되는 낭만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낙동강 주변을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6개소(216홀) 조성 △인조 잔디 야구장 조성 △비산 나룻길 및 갈대 습지 탐방로 조성 △지산 셋강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크골프장 명소로 주목

시는 하천법과 환경영향 규제에 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관내 파크골프장을 전면 양성화했다.

지난해 10월 양성화 절차 완료로 구미(63홀), 동락(36홀), 양포(18홀)의 3개 구장을 정상 운영해 왔고, 일부 미허가 된 선산(27홀), 도개(36홀), 해평(9홀) 구장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

파크골프장 전면 양성화가 완료되면 현재 조성 중인 옥성(9홀)구장과 함께 전체 216홀로 도내에서 제일 많은 파크 골프장을 보유하게 된다.

파크골프장에는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

고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아 구미의 또 다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정규 공인 규격인조 잔디 야구장(4면)

구미대교 아래 낙동강변에 전국대회가 가능한 공인 규격의 인조 잔디 야구장(3면)이 올 4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홈 구장 3면 야구장(36,000㎡ 규모)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인조 잔디, 웬스, 더그아웃, 본부석 등을 설치한다.

또, 올해 지산 낙동강 체육공원에 인조 잔디 야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해 총 4면의 정규 공인 규격의 야구장으로 각종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비산 나룻길 및 갈대 습지 탐방로 조성

지난 2월 개방한 낙동강 탐방로 '비산 나룻길'은 비산 나루터에서 구미천 종점부까지 이어지는 길이 1km의 산책로로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상 보도교와 데크길로 해당 구간을 연결했다.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비산 나룻길'은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탐방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낙동강과 구미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갈대 습지 1.3km 거리에 탐방로를 조성한다. 탐방로는 습지에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만큼 상세한 계획 수립과 하천정음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에 개방될 예정이다.

□지산 셋강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지산 셋강 생태공원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겨울에는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도래 등 천혜의 자연을 시민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시는 벚꽃 시즌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산책로 주변 빛나무 아래에 야간 조명등(LED) 250개를 설치했다.

민들레 조명과 초승달 조명 등 다양한 형태의 조명 설치로 특색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 3대 천연기념물 큰고니를 상징하는 큰고니 부부 상징 조형물을 데크 광장에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황토 맨발 길 체험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지산 셋강 생태공원 기존 산책로에 황토 맨발 길 시범 구간(L=250m)을 조성해 황토길, 황토편, 황토볼, 세족장, 신발장도 설치했다.

올해는 황토 맨발 길을 추가로 연장(L=750m)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3월 중 무인카페도 오픈하며, 산책로 데크에 경관조명도 설치해 구미의 '핫 플레이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 한강의 수변공간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잘 조성돼 있으나, 지방은 각종 규제에 지극히 바라만 보는 하천으로 전락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 건의를 통해 낙동강을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차근차근히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ycs2460@naver.com



강변야구장.



지산셋강 생태공원 겨울.

내 취향에 맞는 고양시 도서관 골라볼까 '차별화 ↑'

'꽃·예술·향토문화·세계 그림책'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 다양

백석도서관 '영어', 대화도서관 '미래산업'... 특화분야 확대 전문성 높여 '낭독완독', '우리동네 로망스', '플로깅 책임깅' 등 도서관 프로그램도 풍성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개막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꽃 특성화 화정도서관 전시 공간 '갤러리꽃'.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주제에 따른 특성화 공공도서관 운영을 강화한다. 시는 꽃·예술·향토문화·세계 그림책 등 4개 특성화 도서관에 이어 영어·미래산업 등 특화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작년 개최한 독서대전을 발판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책의 도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며 "도서관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꽃'부터 '세계 그림책'까지 다양각색 주제별 특화 도서관 운영

고양시에는 19개 시립도서관이 있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이 100여 개 달하는 등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를 자랑한다. 시 도서관센터는 도서관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정도서관 '꽃' ▲아람누리도서관 '예술' ▲마두도서관 '향토문화' ▲주엽어린이도서관 '세계 그림책' 등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화정도서관은 고양시 대표 이미지인 꽃을 주제로 월예, 화해, 조정 관련 도서와 원예도록 자료(지난해 12월 기준 4,780권) 등을 수집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전시 공간인 '갤러리꽃'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사진전'을 시작으로 '화분 채집', '꽃말의 이야기', '모란의 뜰' 등 꽃을 주제로 한 전시를 12월까지 연다.

예술 특성화 아람누리도서관은 예술 감독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봄, 도서관에서

듣는 비발디' 등 계절별 클래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양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작가의 작품을 '빛담' 전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향토문화 특성과 마두도서관은 고양의 지리·역사·문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기반한 향토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양 생태환경을 주제로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자연', '정발산 생태 동식물 스케치' 등 기획 전시를 열고,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 등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엽도서관은 세계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대표 프로그램인 '작가의 방'을 운영한다. 그림책 작가를 초빙해 원화를 전시, 해설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 어린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책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신인 그림책 작가 소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어 도서관으로 변모하는 '백석도서관', 미래산업 인재 키우는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영어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5월부터 다수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데 이어 11월에는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했다. 백석도서관은 영어 관련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글로벌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 인테리어 통합 공모를 4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화도서관은 미래산업 도서관으로 창작자(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서관에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기술과 독서 활동을 융합한 창업·창의 공작소를 운

영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이동 수단(모빌리티) 등 분야의 창작자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기반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백석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국도비 총 85억을 확보한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오래된 창호, 환기·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책과 어울린 연중 프로그램 다채... 오는 9월 '2024 고양 독서대전' 개최

고양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 화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운영했다. '읽는 사이에 -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쉽게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강연,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실시했다.

특히 작년 독서대전에서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올해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지역 내 전문 성우와 함께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낭독완독' 프로그램을 행사·덕이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새롭게 준비한 ▲어린이 오디오 북 만들기(마두) ▲우리동네 로망스(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 예술 체험, 별꿈·덕이·풍동) ▲어반스케치로 도서관을 그리다(아람·대화) ▲시니어 동아리 공연(풍동·신원) ▲플로깅 책임깅(한빛) 등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변동하 기자 byun061@hanmail.net

이차전지 강소기업

「신성에스티(주)」 부산으로 유턴...국내복귀 MOU

부산시(시장 박형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지난달 그린데이터센터 기업, DN솔루션 투자 유치에 연이어 연초부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4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차전지* 강소기업인 신성에스티㈜와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안병두 신성에스티(주) 대표이사, 구자천 신성텔레테크(주)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충전을 통해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드론 등 수많은 전자기기가 이차전지를 통해 구동되고 있다.

신성에스티(주)는 신성텔레테크(주)의 계열사로 2004년 창업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이차전지 부품 관련 전문기

술을 가진 강소기업이다.

2016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 수상 등 기술력과 혁신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증거금 '10조 클럽'(12조 3천억 원)에 입성하며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됐다.

이번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신성에스티(주)는 올해 1월 수주해 내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할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중국(연태)의 생산 거점과 창원의 본사를 부산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미외외국인투자지역에 463억 원을 투자해 고도화된 자체 자동화 설비와 수준 높은 제작 기술, 인증 시스템을 갖춘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성에스티(주)는 이번 체결을 계기로 관리, 구매, 생산, 품질 등 신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60명을 지역에서 우선 고용하고, 공장 착공에서부터 향후 사업 운영까지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성에스티(주)는 직원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직원 모집에 부산의 우수 인력들의 많은 지원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 강소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해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산업 구조 개편에도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 원활한 신성에스티(주)의 원활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기회발특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기호 기자 leeh2155@hanmail.net



창녕군가족센터의한국어교육개강식 모습.

창녕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개강 올 11월까지 총 9개반의 교육과정 진행

창녕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가족센터 2층 강당에서 총 35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올 11월까지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초한국어반과 토픽(TOPIC) 대비반, 운전면허필기대비반, 국적취득반 등 총 9개 반이다.

창녕군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고금어휘까지 구사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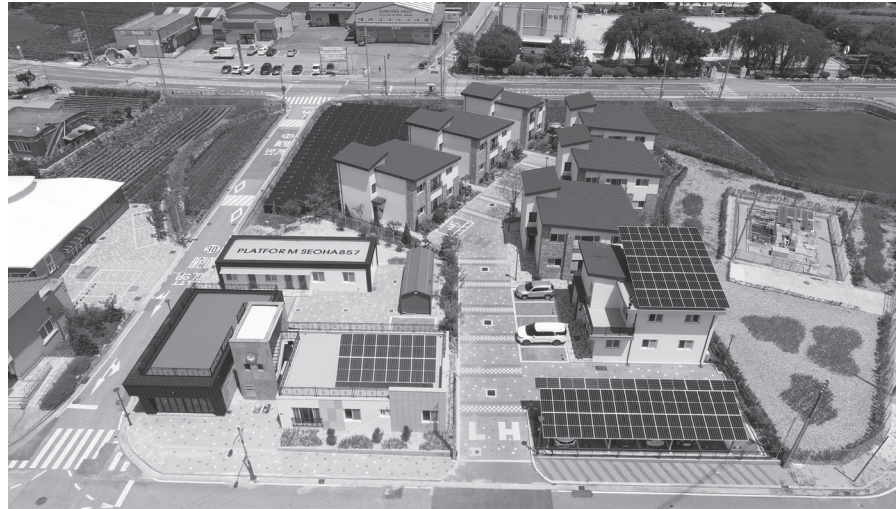
획이다. 창녕군가족센터 정동명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센터는 창녕군 내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단계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수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창녕군가족센터(☎055-532-1606)로 문의하면 된다.

임도영 기자 ldy2567@naver.com

함양군,

작은학교살리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해매입임대주택전경.

경남 함양군은 관내 서해초등학교 전학 가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세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해면 매입임대주택은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해초 학생모임위원

회 등 민관이 협업하여 폐교 위기의 서해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21년 조성한 주택으로 총 12세대 중 이번엔 다자녀 2세대(73㎡형)를 모집한다. 서해면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비용과 단지 내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입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제로에너지 특화설계 적용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우 높고, 농촌주택 특성에 맞춰 자연 채광이 가능한 가구당 약 15㎡ 면적의 텃밭도 제공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이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9회까지 연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 공고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지역협력담당(☎ 055-960-4144)으로 하면 된다.

이효열 기자 eer4810@naver.com

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정인덕 기자 jidj0505@naver.com

예천군,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리자!

오는 12월 말까지 미사용시 소멸,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올해 총 사업비 4억 6천만 원, 3,578명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만 원이 증액되어

1인 기준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소멸된다.

사용처는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영화, 전시, 공연, 문화 체험 등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시외버스·철도, 운전 등 체육·관광 분야 등에 사용 가능하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대도시와 달리 사용처가 부족해 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규 가맹점 발굴을 통해 대상자들이 다방면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후 기자 vann48@naver.com

산소카페 청송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위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로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8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

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

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섭 기자 19860518@hanmail.net



드론활용문화재 주변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관련 사진.

경주시, 드론 산업 상용화 지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박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이어 내년 6월 3회 도전

2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경주시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021년과 2023년 2회 연속 지정된 이어 3회 지정 도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키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 특구다.

시의 드론특구는 △남산지구(0.26㎢): 내남면 월암재 인근 △월성지구(0.57㎢): 인왕동 석빙고 인근 △대룡원지구(0.81㎢): 황남동 대룡원 인근 △산성지구(0.90㎢):천군동 진평재 인근 등 4곳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년간이다.

현재 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실증사업 참여 업체와 함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키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드론특구 추진 방향은 문화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시스템 등 드론표준도시 구현이 핵심 골자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드론으로 한국형 3D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공간 자체 콘텐츠 생성 및 시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 군집 드론 아트쇼 콘텐츠 제작 및 실증사업에도 나서 미래 지향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에 있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재권 기자 pjcs5570@hanmail.net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안전체험과 함께하는 가족 자조모임 진행!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월 29일 중증정신질환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가족 자조모임에서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응급처치 체합과 산발·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가족들의 고민을 나누고 가족들의 다양한 대처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족 자조모임 참여자 중 한 회원은 "이런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니 고맙다"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어디까지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안전체험 자조모임.

조성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가족교육은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족 자조모임이 봉화군 내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덕 기자 jidj0505@naver.com

의성군,

저출생 대응 전담조직 킷오프 회의 개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9일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저출생 대응 TF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생애주기별 일자리, 주거,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교육, 보건·의료, 문화·복지 6개의 대책반이 함께 구성되었다. TF는 기존의 인구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생 극복 신규 시책 발굴 등 인구·저출생 문제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맡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성군 인구 감소 원인과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정부·경상북도·민간·의성군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생 대응 전담 조직(TF)의 구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6개



저출생대응 전담조직 킷오프 회의.

대책 분야에 대한 대응방향과 단기·중기·장기별 계획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 회의를 통해 인구·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진호 기자 j3963@hanmail.net

경북도, 외식산업 k-글로벌 푸드 도약을 위해 패러다임 탈바꿈

야놀자와 업무협약으로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추진

경상북도는 외식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야놀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k-푸드 도약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섭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 대표,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K-키친 프로젝트 추진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과 경영 컨설팅 ▲스마트키친 플랫폼 및 통합솔루션 개발 ▲디지털 신기술과 글로

벌 트렌드 자문 등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함께한다.

경북도와 야놀자는 경북도 외식산업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디지털 대전환으로 외식 환경 변화 추세와 외식업 영업주의 디지털 간격을 최소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우선, 외식업 매장관리의 효율화와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외식 분야 전반에 디지털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경영솔루션을 지원한다.

또, 외식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권분석과 식재료 관리, 손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

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맞춤형컨설팅 분야: ▲푸드테크 적용(기기활용), ▲배달서비스, ▲식재료 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인사·노무, ▲세무, ▲주방환경개선(동선효율화)

경상북도는 현재 준비 중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과 고객의 방문 전부터 매장 이용 전후의 모든 단계를 통합 데이터로 관리하는 'K-키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과 협력한다.

도가 추진하는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에서 외식 수요 감소와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국내 외식사업의 해결책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외식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업무협약식.

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외식 업소들이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로 인해 편리성과 경영 효율성은 좋았지만, 공간적 제약이나 데이터 활용과 같은 문제로 확장이 부추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전통적 외식산업의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경북의 자력으로 외식산업이 글로벌 K-푸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이강덕 포항시장, 효곡동 찾아

시민 의견 수렴...소통으로 시민 행복 높인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4일 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효곡동 시민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포항시는 4일 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도 의원,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곡동 시민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의 하나로, 이날 효곡동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항시의 역점사업

인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 바이오헬스, 포스텍 대대설립 추진 등 포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했으며, 효곡동 지역과 관련 있는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묻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도 가졌다.

특히 포항 칠길숲과 형산강 주변 효과권역을 있는 인도교 설치, 주차장 부족에 대한 시의 방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등 지역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포항시의 미래를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쓰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스마트한 관리

울진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상반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00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는 6개월간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스마트 폰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울진군은 어르신에 특화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간호사, 영양사) 인력을 활용하여 전

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전문인력은 미션수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는 스마트폰과 대어발은 기기를 연동하여 건강미션을 수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울진군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율적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 친화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안동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7월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 연

령으로 확대해 올 3월 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39

세인 자를 말하며, 신혼부부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24. 1. 1. ~ '24. 3. 3. 기간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연령무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경북청년포털 청년e플립 누리집(https://gbyouth.co.kr/main.tc)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웅부관 4층)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구미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

취업취약계층·청년 미취업자 등 총 145명 선발, 61개 사업장 배치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약 10억 원을 투입하며, 참여자는 145명이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일

까지 약 590명이 지원했으며, 시는 가구조득, 재산, 부양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득점 순으로 145명을 최종 선발, 시청, 사업소, 읍면동 61개 사업장에 배치했다.

사업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만 65세 미만 주 30시간, 만 34세 이하 청년 참여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시

당 9,86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보조 및 상담 사업, 분리 및 수거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로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추진되는 공공형일자리사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민간취업 시장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훈련 참여 유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안내 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매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시행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철수 기자 ycs2460@naver.com

부산교육청, 더신나고 즐거운 아침체인지(體仁智)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아침체인지(體仁智)'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교를 깨우는 아침체인지(體仁智)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적인 체육활동이다. 친구들과 신체 부대끼를 통해 건강 체력을 회복하고,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요일제형 ▲자기주도형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교육과정 연계형 등 4개 운영 형태를 제시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아침체인지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이 가운데 '요일제형'은 학교 규모를 고려해 학생당 주 1~5회 참여할 수 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 개인 종목형과 축구, 농구, 배구 등 단체 종목형을 학교 여건을 고려해 20분 이상 운영하면 된다.

올해는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호 기자 leeh2155@hanmail.net

경산시,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 개최

경산시는 4일(월) 이강학 부시장 주재로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산시보건소, 경산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 청도지사, 경산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단체장과 지역 의료기관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경북권역 재향병원 등 의료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응급환자 응급실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이송 전담 ▲개원의 집단행동 동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논의했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경산시보건소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의료·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진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 및 운영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 중이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기장군,

'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 시행한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 5일까지 '2025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전문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과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

득향상을 도모하고,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지역 임업인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이며 지원분야는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이 있다.

이기호 기자 leeh2155@hanmail.net

숲에서 느끼고, 배우고, 치유하기 시흥시 숲 프로그램 겨울잠 끝내고 '기지가 활짝'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조남숲체험장 숲체험 프로그램.



옥구목공체험장.

시흥의 숲이 겨울잠을 깨고 기지가개를 펴고 있다. 온순해진 바람과 따뜻한 햇빛이 숲 구석구석을 매만지고 있다. 산은 그 자체로 쉽다. 그러나 이 산을 시민의 일상 곳곳에 꽃피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흥시에는 소래산과 운흥산, 관무산, 마산 등이 지역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그리고 시민은 숲 안에서 배우고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 3월부터 진행되는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시흥시와 함께 더 푸른 일상을 경험해보자.

◆도농농악 보고, 흙 만지며 '숲을, 느끼다'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축소되고 있다. 시흥시는 자연이 주는 힘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온몸으로 숲을 느끼고 숲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일 년 내내 마련하고 있다. ▲조남숲체험장 ▲소래산농악 ▲옥구공원숲 산림복지센터 세 곳에서 진행되고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

체험장 별로 프로그램은 상이하다. 3월 조남숲에서 아이들은 봄소식을 찾는 탐정이 되어 숲에 드리운 봄의 흔적을 탐구한다. 연못 속에 파리를 들고 있는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자세히 살펴보고 숲 곳곳에 움트는 초록빛 생명들의 이름도 찾아본다.

소래산농악과 옥구공원숲에서는 봄을 맞아 몸을 가볍게 한 새들의 새로운 내집 마련에 참여한다. 새둥지를 관찰하며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서식은 어디인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알아보고 직접 울새 새들이 터를 잡을 동지를 만들어 본다.

이 외에도 봄에는 움트는 꽃과 나무, 에벌레를 자세히 관찰하기, 공벌레, 지렁이, 개미 등 땅 속 생물과 친해지는 시간들을 마련했다. 여름에는 하나의 나무가 자라나 숲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매미 등 숲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만나본다. 가을에는 열매와 알록달록 색을 입는 단풍의 원리를 살펴봄과 자연의 생명력을 경험한다.

◆원데이클래스부터 목공 전문가 반까지 '숲에서, 배우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배움을 통해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옥구공원숲으로 가보자. 옥구공원에는 산림 부산물(숲 가꾸기, 도심 내 위험목)을 가지고 다양한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옥구목공체험장이 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옥구목공체험장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일 수업부터 4주간 진행되는 수업까지 즐겁고 유익한 목공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에서는 연필꽃이부터 휴지통, 수납함, 선반, 독서대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은 짧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 볼 수 있다. 재료비와 체험료 모두 포함해 2,000원이고 시흥시민은 30% 할인이 가능하다.

채색비 2,000원은 별도다. 3월부터 개강한다.

보다 본격적인 목공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4월부터 시작하는 실용가구 클래스에 참여하면 된다. 매월 20일부터 접수받는데, 3인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수업을 진행한다. 체험료는 역시 회당 2,000원이고, 작품에 따라 수업은 3주 또는 4주간 진행된다. 이 클래스에

서는 테이블이나 책장, 의자, 행거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희망공원 나눔목공소에서는 전문적인 목공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전문가반에서는 시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용가구 제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12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목공작업을 위한 장비 사용법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면 그리기, 페인팅, 가구 제작까지 이어진다.

◆맨발로 산책하고 아로마테라피까지 '숲에서, 치유하다'

빌딩숲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 필요하다. 한때 서점에서 '힐링' 열풍이 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미디어 홍수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온전히 나를 보듬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시흥시가 준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옥구공원숲 산림복지센터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1시간 30분 간 진행되며 신경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 차, 아로마오일 테라피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한방 건식족욕체험, 숲속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명상과 맨발걷기로 구성돼 있다.

자연이 담긴 다양한 만들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천연재료로 만드는 족욕제, 피톤치드 향기가 가득한 편백알 향기 주머니, 수면에 도움이 되는 라벤더 향초 등 일상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물품'과 나무를 활용한 '공예물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흥시가 마련한 숲 프로그램은 모두 시흥시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권영구 기자 sdsilbo1111@nate.com

영등포구, 오세훈 시장의 도시 대개조 1탄 '서남권 개발 계획' 두팔 벌려 환영

영등포 준공업지역,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5% 차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서남권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은 ▲ 과거 제조업 중심지였지만 급속한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전환 ▲ 준공업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노후 주거지를 공동주택 용적률 400%까지 완화하여 녹지와 편의시설 등이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조성 ▲ 안양천을 수변공원으로, 여의도

퇴색된 지 오래고, 일제 강점기부터 구획되어 100년 이상 지나 준공업지 내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노후된 주택밀집, 주거와 공업의 혼재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다 지금도 준주거시설은 4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원룸,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 난개발로 이어져 왔고, 이는 차량 정체, 주차 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종길

바 있다. 용적률 400% 완화 조례 개정 촉구 및 준공업지역의 실질적인 혁신방안 등이 서울시에 전달되었고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서울시 관계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개정되면 영등포에서는 우선 문래동과 양평동에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충분한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더해진 직주근접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준공업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하는 조례 개정에 큰 기대감 드러내

미래 4차산업 경제 중심지이자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

제2의한강의기적, 영등포 르네상스시대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공원을 도심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녹지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영등포 준공업지역은 구 전체 면적의 20%,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5%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서남권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이 약해진 현재의 준공업지역은 비공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총 77%로 준공업지역 지정취지가

시민의원을 비롯한 서남권 의원들이 지난 해 8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최고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서남권 개발 계획'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조만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아울러 구는 작년 10월부터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번 서남권 개발 계획에 발맞춰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동 등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발전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여 미래 4차산업을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영등포 도심구역의



지난해 12.18. 서울시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경우,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첨단산업 유치 등 영등포가 4차산업 일자리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해 여가와 쉬, 감성을 더한 '녹색 매력도시'를 구현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산이 없어 상대적

으로 녹지가 부족한 영등포 주민들은 여느 자치구보다 반색하는 모양새다. 영등포의 대표 여가 공간인 안양천은 이미 지난해 시비 30억원을 확보, 2025년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변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시유지인 여의도공원은 향후 제2세 중분화회관이 들어서며 도심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준공업지역은 넓은 면적,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기회의 땅'이다"라며,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더욱 긴밀히 협업하여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4차 산업 첨단 미래 일자리 중심지로 조성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 영등포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영구 기자 sidsaeoul@daum.net

친환경 금산양수발전소 성공 추진 첫 발

도-금산군-한국남동발전(주), 조기 건설 등 사업 성공 추진 위한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금산양수발전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인 '금산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김태홍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법민 금산군수, 김희천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금산양수발전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발전소 조기 건설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정책 공동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사업 추진에 힘을 합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을, 사업

자로 한국남동발전(주)을 선정했다.

151만 6000㎡(약 46만평) 부지에 50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는 양수발전소는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양수발전은 하부담 물을 상부담으로 끌어올려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상부담으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기는 낮시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과잉생산되는 전력을, 밤시간에는 유류전력을 활용하는 만큼 탄소중립경제를 견인할 발전 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 5469억원이 투입되며 2037년 말 준공 예정이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향후 50년간 지원금 493억원, 지방세 수입 350억원, 관광수익 5000억원, 직·접고용 120명, 인구 420명 증가 등 총 1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관광지 개발 및 연관 산업육성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충남은 금산양수발전소가 '지역경제의 발전소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지역에 수 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이번 사업의 관건은 신속한 예타 통과인 만큼, 힘써준답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영선 기자 yusun005@hanmail.net

논산시, 수원시민과 함께 딸기 엑스포 유치 기원

백성현 논산시장, 수원KT와 창원LG 경기 시투



딸기엑스포 유치 행사에서 하이파이브하는 수원시민.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3일 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프로농구 수원KT와 창원LG 경기에 시투자

로 참석했다.

백시장은 경기장을 방문하여 논산의 대표 농산물인 '논산딸기'와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을 홍보하고, 논산시의 역점 사업인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유치를 위해

해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특히, 백시장은 27일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여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딸기는 향미와 영양이 풍부하고, 모두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수원시민 여러분께 논산딸기의 맛과 향을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며, "논산딸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딸기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유치를 위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KT 소닉붐 아레나 광장에서는 논산딸기 시시행사를 통해 수원시민들에게 논산딸기의 신선함과 달콤함을 선사했다. 또한,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4년 논산딸기축제'에 대해 안내하고, 축제 참여를 권유했다.

백경우 기자 ok000304@hanmail.net

탄소중립 실천위해 "잔반제로(Zero)" 도전

'2025 인천 탄소 중립 비전' 실현 총력

인천광역시시는 오늘 4일부터 시청 구내 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잔반제로(Zero)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담홀 별관에서 운영 중인 "탄소중립 잔반 Zero 시범사업"을 소담홀 전채로 확대해 "2045 인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공공이 실천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잔반 Zero 챌린지 사업은, 시청 구내식당 소담홀에서 잔반없이 식사후 공무원증을 카드리더기에 태그해 잔반 현황을 관리하며, 대형 모니터 화면에 잔반 발생 현황, 잔반 Zero 성공자 현황, 잔반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표출함으로써 잔반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잔반 Zero 실천에 따른 보상을 정례화 하고 잔반 Zero 성공 횟수를 누적하는 잔반 Zero 포인트제를 운영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실천수범하여 탄소중립 생활화를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

로 "2045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육성", 「사업장 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 다양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2023년 구내식당에서 36톤의 음식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사업시행으로 20%만 잔반을 줄여도 710k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이는 소나무 182그루를 심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10%가 음식물의 생산·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철순 기자 provin2@daum.net

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4일부터 방문 신청·접수 돌입

태안군이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2월부터 4월까지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2월 비대면 인터넷 신청 접수를 거쳐 3월 4일부터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태안군에서는 지난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대상농지에서 농업에 경영하고 있는 1만 472농가가 총 236억 894만 1320만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았으며,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4억 4천만 원 가량 증가한 24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당 지난

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영농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전적 단가가 적용되며, 면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논밭 189~205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62~178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00~134만 원을 받는다.

현재 지목과 관계 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가 적용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다. 지급은 연말 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행위 등 불합격 사유 발생 시 직불금 환수 및 벌금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성철 기자 jsc2849@naver.com

대전교육청,

신학기 늘봄학교 힘찬 출발!



늘봄학교 방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 4일(월), 설동호 교육감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이 신학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전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서부초등학교를 방문 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참관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공간, 인력 현황 등 전반을 확인하였다.

대전서부초등학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의미술 ▲신체놀이 ▲동요교실 ▲보드게임 ▲세계문화 ▲지구환경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하교하거나 방과후학교 또는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놀이활동 중심의 맞춤형 예·체능, 심리·정서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한다.

김기배 기자 rfrlqo40@naver.com

당진시, 2024년 거점별,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보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당진시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2024년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 보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감자, 양파, 고구마, 생강, 무, 배추 등 원예농산물 전반이며, 대상자는 공선출하회* 조직이다.

*생산 농가와 판매 조직이 연계하여 농산물을 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모임.

시는 지역농협 저온 창고 이용 시에서 저온 창고 보관 임차료의 80%를 지원(평당 월 30,000원 기준)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동시다발적인 농산물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면 수확 작업비 및 물류비도 안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어렵게 농사

지은 농작물을 폐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시는 이에 대응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저온 창고에 보관했다가 가격 상승 시 출하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연중 수시 신청받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품목별 공선출하회에 등록 후 지역농협과 저온저장고 이용 보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지역농협 공선출하회는 사업신청서와 계약서를 첨부해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041-350-4742)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보관 임차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농산물의 수급이 안정화되고,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성철 기자 jsc2849@naver.com

예산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농식품바우처로 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지원

예산군(군수 최재구)은 2024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8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3월 4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3천 151가구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 시범사업을 공모했으며 충남에서는 예산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신청한 가구에 지급되는 바우처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지역 농·축협 하나마트, CU, GS25, GS더프레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농식품구입불가)를 구매

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가구 기준 월 4만원)되며, 신청일 이전사업비는 소급 지급이 불가하다. 3월 4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 발급을 신청, 신청일 다음날 9시부터 가용가능하며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군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로 지난 2월 20일부터 신청접수 중이며 당일 사용을 못하면 소급이 불가한 만큼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영선 기자 yusun005@hanmail.net

금산군보건소,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금산군보건소는 3월 15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을 모집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 수준에 대한 대표성 있는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조사다.

조사원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성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우대 조건은 업무경력자, 관내 거주자, 지역 실정에 밝은 자다. 지원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 서류

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금산군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조사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표본 가구를 방문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금산군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건강생활지원센터(☎041-750-4401~2, 754-8334)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배 기자 rfrlqo40@naver.com

♪ 용산 유튜브에 내가 나왔으면 ♪ 용산구, 제1기 구민 배우 10명 공개 임박

오는 5일 구민 배우 선발 최종 오디션 개최... 11~66세 연령층 다양

11:1 경쟁률 기록... 연기·카메라 테스트 통해 최종 10명 선발

구민 연기 참여로 더 친근하게 구정 전달... 뉴미디어 소통 강화하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5일 용산구청 인터넷방송국(녹사평대로 150, 지하3층)에서 제1기 용산 구민 배우 10명을 선발할 최종 오디션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구민 배우는 공식 유튜브 채널(@yongsan-official-channel)에서 활약하게 된다. 구민이 직접 구정 홍보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에 참여해 끼와 재능을 펼칠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예비 구민 배우는 총 30명. 11세부터 66세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지난달 13~26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112명 중 1차 서류 심사도 추려냈다. 구 관계자는 "첫선을 보이는 용산 구민

배우에 예상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주셔서 최대한 열의를 보이는 분들을 선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자들은 1차 합격 통보 시 전달한 대본을 연기하며 카메라 테스트에 10~15분간 임하게 된다. 개인 차이를 고려해 성별·연령별 지정 대본을 달리했다. 구 인터넷방송국을 관리하는 PD, 작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연기 ▲대사 ▲표정 ▲활동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0명을 선발한다. 합격자에게는 오는 7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11대 1 경쟁률을 뚫은 용산 구민 배우는 구 유튜브 채널에서 주요정책과 사업, 축제, 행사 등 구정소식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며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까지 10개월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 배우가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소통자로 활약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곧 선발될 구민 배우들과 함께 모든 구민이 즐기면서 구의 소식을 알아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해 처음으로 말과 손으로 구정을 소개하는 '구수(口手)한 소식지'도 유튜브 채널에 게시 중이다. 홍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유용한 구정소식을 정보 소외계층에도 쉽게 알리려는 취지로 구민 소통을 다양화해 가고 있다. 김형규 기자 sdaeseoul@daum.net

내가 배우가 된다면?



용산구 구민 배우 모집 홍보영상 갈무리.

이천시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 '수상'



신한꿈도담터 SW경진대회 수상.

이천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신한금융그룹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겨울방학 특강(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초·중·고학년 대상 10명, 매주 화·수·목 4회)으로 SW 심화교육 및 SW경진대회를

실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고 사피엔스4.0이 주관하는 신한꿈도담터 SW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20팀, 250명이 참가했다. 그 결과 이천시공동육아

‘환경오염지킴이팀’ 여성가족부 장관상
‘애국심팀’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

나눔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획득된 상으로, 2024년 2월 27일 15시에 이천시가족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여성가족부 장관상은 '환경오염 지킴이팀' 문지효(이천남초5), 방성윤(이천남초5), 방예은(이천남초5) 학생,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은 '애국심팀' 김우주(이천중1), 송수용(증포중1)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명호 센터장은 "전국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이천시가족센터에서 받아 영광이며, 이천시의 역량과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김명희 기자 cdolls@naver.com



플로렌스선교사식물도감벽화길(순천시매산동순례길).

한국 야생화의 전설이 깃든 순천시 매산동 순례길로 오세요!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 조성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독교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해 매산동 성지순례길에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라는 주제로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플로렌스는 1913년 남편 크레인 박사와 함께 순천에 파송돼 1954년까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했다. 매산여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15년간 순천의 야생화와 그에 얽힌 전설을 조사해 1931년 한국 최초의 식물도감인 『한국의 들꽃과 전설(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을 발간했다. 현재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제2전시실에 전시돼 있다. 시는 2012년 플로렌스가 순천에서 살았

던 매산동 선교마을에 기독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한국의 들꽃과 전설 아트타일 벽화를 설치했다. 금번 2024년 2월 홍매화 개화시기에 맞춰 노후화된 벽화들을 전면 재단장하고 꽃에 얽힌 민담도 새로 번역한 후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로 이름 지었다. 또 박물관에서는 진품 유물 관람과 함께 '선교사가 그린 순천의 꽃' 컬러링북 그리기와 '플로렌스 식물도감' 텀블러 만들기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벽화길 탐방을 원하는 단체는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061-749-4530)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jsk6239@daum.net

부여군, 2024 아시아 피나클 어워즈 '베스트 문화유산 프로그램 부문' 수상

뛰어난 부여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



2024아시아피나클어워즈수상.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 피나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베스트 문화유산 프로그램 부문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행사는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제 컨퍼런스로, 한국을 비롯한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총 10개국 45개 도시에서 60개 축제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동안 부여군은 3대 문화유산 활용 행사인 문화유산 야행,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축전을 비롯하여 지역문

화유산 및 세계유산 활용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상식 '베스트 문화유산 프로그램 부문'은 최고의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한 도시에 주는 상으로 부여의 대표적인 야간 프로그램인 문화유산 야행과 민간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문화재 활용기획사 양성 교육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여군은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숨은 가치를 재발견하고 부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올해 4월에 문화유산 야행, 9월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0월에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규 기자 ok00304@hanmail.net

고양특례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시작

3월 9일부터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오후 10시까지 관람 가능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들이 야경을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야간 개장을 3월에서 10월까지 2·4째 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주산성 야간개장 첫 시작일은 오는 3월 9일 토요일이다. 행주산성은 한강을 낀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적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손꼽혀 왔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이룬 역사적인 현장이다. 산성의 형태는 덕양산을 둘러싸고 퇴축된 토성으로 전체 둘레길이는 약 1km에 이른다. 관람객들은 행주산성의 시작인 대첩문

으로부터 권율장군 동상을 지나, 총장사, 덕양정 등을 둘러보며 행주대첩비가 있는 정상에 올라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탁 트인 한강 야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주산성 야간개장 관람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입장마감은 오후 9시까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주차는 행주산성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는 일반운영 시간에는 유료, 오후 6시 이후 야간개장을 위해 입장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변동하 기자 byun061@hanmail.net

창간 32주년 특집 시대일보와 함께하는 일반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223)



‘에너지 절약’

‘아니- 왜 갑자기 불이 커지는 거야.’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전기가 완전히 꺼지면서 집안이 온통 시커멓다. 한여름이나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면 각종 뉴스와 보도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전기가 끊어져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전기가 끊어지면서 겪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여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전력량 증가로 전정이 자주 발생해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더운 날씨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 전력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특히 코로나 19가 성행하던 한창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살인적인 무더운 날씨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기에 전기가 오랜 시간 끊어질 때에는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해 장시간

전기 사용을 못 해 병창고에 있던 음식물들이 상하는 일마저 일어나 건강을 위협하는 등 국민의 불편은 말로 다 하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찾아온 극심한 불볕더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된 일이다.

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불볕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하게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절약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최소한의 냉방기를 가동하고 조명 점등 생활화하기, 승강기 이용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조명은 최소한 사용을 억제하고 외출 시 전원 등을 차단해 놓는 일들을 생활화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나 하나만이라도 절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절약 모두가 함께하자.

홍현중 발행인

수원시, 2월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은 김영근 주무관

김영근 주무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공직자 되겠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024년 2월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으로 건설정책과 도로정비팀 김영근 주무관을 선정했다.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이 칭찬한 ‘친절공무원’ 후보 27명을 대상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 등을 평가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김영근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했다. 김영근 주무관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 시민은 “건설기계 운행 허가에 대해 문의했는데, 친절하게 법령을 알려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며 “김영근 주무관님의 조언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영근 주무관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인 마음에 공감하는 공직자가



김영근 주무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친절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을 매달 선정하고, 수원시장 명의 상장을 수여한다.

이동화 기자 ahwa21@naver.com

혜화동, 취약계층 이웃 위한 쌀기부 ‘눈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 혜화동으로 지난 26일, 이웃사랑을 담은 백미가 도착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박창훈) 혜화지점에서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백미(10kg) 144포를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해 온 것이다. 혜화동주민센터는 이날 받은 쌀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복지사각지대 등에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희 혜화동장은 “심심일만으로 모은 귀한 쌀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혜화동 주민센터 및 종로중앙새마을금고 혜화지점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성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서운면 청렴 모의고사.

안성시 서운면, 직원 대상 청렴 모의고사 개최

안성시 서운면이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서운면 제1회 청렴모의고사”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이뤄진 이번 모의고사는 공직자 각 꼭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률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을 주제로 출제됐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학창 시절로 돌아가 직접 청렴 영역 모의고사에 응해 청렴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

련됐으며, 직원들은 업무를 떠나 청렴이란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양승동 서운면장은 “우리 시정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에서 비롯되는 시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서운면 전 직원이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순태 기자 stk1177@daum.net

이천시, ‘2024년 시민 유튜브 영상크리에이터 및 SNS서포터즈’ 위촉식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이천시 시민 유튜브 영상크리에이터 및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 유튜브 영상크리에이터 5명과 SNS 서포터즈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크리에이터 및 서포터즈는 프리랜서, 주부,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타 지역 시민도 포함됐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과 활동증을 전달하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활동 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위촉



이천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 SNS 서포터즈 위촉식.

식을 통해 시민 소통과 지역 홍보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명희 기자 cdolls@naver.com

社說

사상 최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충남 서산에서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며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339㎢(1억 3,0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군 비행장 주변 287㎢, 점경 보호구역 38㎢도 해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군 비행장 주변에 있는 경기도 성남, 포천, 남양주, 가평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을 제기해 온 충남 서산 지역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특히 서산은 민간 공항건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경 지역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지역개발에 제약이 받아온 경기도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도 숨통을 트일 것이며 지금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세종시 남면, 평택, 충북의 진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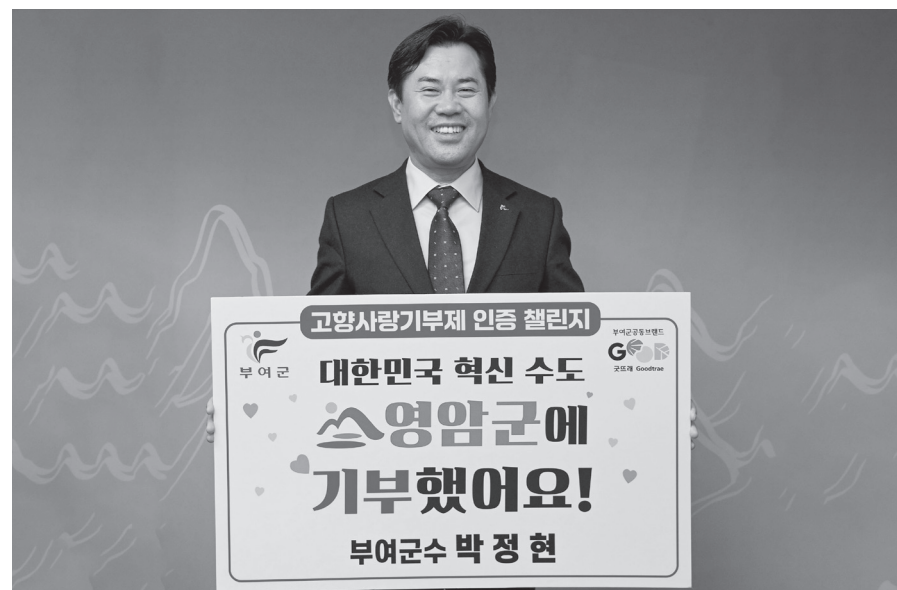
사실 이들 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경우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주민생활 편의시설 역시 제한적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득표를 위한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대통령의 언급도 그와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왕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만큼 꼭 필요하면서도 누락된 곳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탄약창 이전이 빠진 것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챌린지.

박정현 부여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챌린지 동참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달 29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 기부 인증챌린지는 지난해 자발적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어서 고향사랑 기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군수는 서산시 이완섭 시장의 응원챌린지를 이어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부여군과 우호도시 협약 예정인 우송회 영암군수를 지목했다.

박봉규 기자 ok000304@hanmail.net

시대일보

부동산 구인구직·각종 공고·광고 문의 및 접수

<p>각종 준공수 전문</p> <p>주택,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준공시 조경·부대 토목 전문 준공 책임·하자 확실</p> <p>010-7268-5699</p>	<p>충남 토지</p> <p>30,000㎡ m²당 2만 신도시 예정 웅천역 2분 대지+전+임야</p> <p>010-7429-7707</p>	<p>강화 임야 매매 (급)</p> <p>강화 하점면 10711㎡ ㎡당 10,000원 교환가능</p> <p>010-7268-5699</p>	<p>건축허가 (난) 토지매입</p> <p>매매 힘든 토지 매입 전문 전국토지매입 대기</p> <p>010-7268-5699</p>		
<p>상가 매입 전문</p> <p>분양 안되는 상가 전문 전국 상가매입</p> <p>김부장 010-7268-5699</p>	<p>업소 전문 부동산</p> <p>매매, 교환, 전문 급한 업소 전문</p> <p>010-7268-5699</p>	<p>부동산</p> <p>교환 전문 처리 힘든 물건 환영</p> <p>010-7429-7707</p>	<p>파주 초특급 임야</p> <p>면적 53,000㎡ (관리, 농림 2분의1씩) 매기㎡당1만원 용자 농협1억8천 동향·가용면적 40% 현황도로접 교환 가능 (상가, 모텔, 주택)</p> <p>02) 2259-9080</p>	<p>예담건축사사무소</p> <p>대표 유만상 yedam1535@naver.com</p> <p>010-9199-3812</p>	<p>(주)키움개발</p> <p>대표 권영은 soonai1730@hanmail.net</p> <p>010-8962-4757</p>
<p>부동산 교환 전문</p> <p>부동산 교환 전문 교환 원하는 분 연락 바람</p> <p>010-7268-5699</p>	<p>◆급매◆보령◆토지</p> <p>면적25,000㎡(계획관리 전임야) 매기㎡4만원(용자·농협4억원) 전원주택 4동(약5,000㎡)허가 필 잔여토지전부개발,보령시청10분</p> <p>02) 2259-9080</p>	<p>종합, 단종 건설 면허</p> <p>양도 양수 대한건설 정보</p> <p>김부장 010-7268-5699</p>	<p>분실공고</p> <p>약속어음, 당좌수표, 수표 분실공고 일간신문 진행 전국 모든 신문 공고 접수/신청/진행</p> <p>1522-3283 / 010-3328-0538</p>	<p>민도움행정사합동사무소</p> <p>대표 강경구 kangkoo4725@naver.com</p> <p>010-9578-8558</p>	<p>전화: 1522-3283 팩스: 0321329-9322 이메일: sidae1992@nate.com www.sidaeilbo.co.kr</p>

여수국가산단을 탄소중립 대응 신산업 메카로 육성

6일 여수미래혁신지구에 국내 유일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개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6일 여수미래혁신지구에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를 열고 탄소중립 대응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국내 최대 종합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을 친환경·저탄소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취지다. 4일 시에 따르면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는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형 석유화학 공정 실증 연구시설로 ▲저탄소 고부가 산업공정에 필요한 촉매개발과 ▲CCU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제품 제작지원, ▲탄소중립 대응기술개발 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시는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대응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여수국가산단의 CCUS클러스터 구축...올해부터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
CCUS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CCS)과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CCU)로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며, CCUS클러스터는 바로 이 두 산업의 결합을 목표로 한다. CCUS클러스터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CCUS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게 ▲CCS 공공인프라 구축사업과 CCU사업을 합한 CCUS클러스터 구축과 ▲CCUS를 통한

형 친환경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관련 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연관기업을 집적화해 수요와 공급의 전주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술을 자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화단지다. 앞서 시는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나섰으며, 올 하반기에 특화단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이트바이오 산업육성의 기반이 되는 '생분해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사업'에 KATRI시험연구원이 선정돼 향후 미래혁신지구에 지역조직을 두고 화이트바이오 분야 연구와 기업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산단의 폐열을 활용하는 '산단형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정부 공모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미래혁신지구에서 실증설비를 갖추고 사업화 기반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은 기존 물을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 개소식.



여수국가산단 화이트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전문가 회의.

CCUS산업 인프라 확충·기술개발로 여수산단 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고탄소 석유 기반 산업 대체

그레이수소의 블루수소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국가가 직접 용역을 수행해 클러스터 구성과 클러스터에 필요한 세부 사업들을 담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유기반 고탄소 화학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 시는 석유기반 고탄소 화학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화이트바이오와 생분해 플라스틱, 리사이클산업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여수시,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기반조성에 박차** 특히, 이 같은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지구를 조성 등 관련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많은 연구기관 유치 등 연구기관 집적화에 힘써왔다. 우선, 지난해 11월 29일에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가 개소해 여수국가산단 CCUS클러스터 구축사업,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의 주관기관으로 향후 지역 화학산업의 발전전략 수립과 중소기업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끓인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대신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스팀터빈 대비 터빈 크기가 80% 감소해 소형화와 분산전원에 용이하고, 발전효율이 2~5% 향상되어 발전비용이 최대 15% 절감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CCUS 클러스터 구축과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을 탄소중립 대응 신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이에 따라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연 기자 yeon5814@hanmail.net

완도군,프랑스와 해양치유·해양바이오 '맞손'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



완도군은 지난 1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인 발디즈와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한 전남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 및 차별화 전략 구축을 물론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인 발디즈(Valdys) 로스코프 센터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발디즈 대표 이브 디아르(Yves Diard)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치유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이 찾은 프랑스 서북부에 위치한 로스코프(Roscoff)는 1899년 세계 최초 해양치유 요양이 시작된 지역이다. 이날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

한 발디즈 기업은 1960년 두아르네즈(Douarnenez)에서 창설하여 로스코프 해양치유시설을 시작으로 포르니체(Pornichet), 생장드 몽츠(Saint-Jean-de-Monts) 지역의 탈라스 테라피를 인수·확장해 나가는 전문 해양치유 기업이다. 발디즈 로스코프 리조트에서는 해조류 마사지, 해수 수중 자전거, 수중 체조, 해수 미스트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당일, 주, 월 단위로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화장품 및 스킨케어 사업도 시작하여 인근 지역은 물론 외국에서까지 고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프랑스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완도군은 지난해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을 해외 5개국에 수출한 바 있어 프랑스 화장품 시장에 우리나라 해조류 소재를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명 화장품 회사인 BCM(Bretagne Cosmétiques Marins)과 피토메르(Phytomer)를 방문했다. BCM은 해조류를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제조하는 해양성 코스메틱 화장품 전문 회사로 탈리온(Thalion)이라는 글로벌 대표 스킨케어 브랜드를 갖고 있다. 피토메르는 1972년 설립된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품 브랜드로 해조류 육상 양식을 통해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 및 친환경 생산 기법을 통해 스킨케어 고급 해양 화장품 생산하고 있다. 군은 완도에서 제품 개발된 화장품 10종과 해양치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 특화 자원 화장품 4종을 선보이며, 한국산 해조류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류하고자 건의했다. 또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내에 스포츠 재활 기능을 추가해 도입하기 위해 노르망디 재활의학센터를 방문하여 해수풀 등 재활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노르망디 재활의학센터는 1911년에 지어진 고급 호텔을 1967년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활용한 재활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근골격계 및 신경 병리 전문 센터이다. 고정석 기자 ksgohy21@daum.net

마포구, DMC 랜드마크 신속한 건립 위해 발벗어

신속한 DMC 랜드마크 건립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이어가 상암동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경제 중심지로 부상 기대

최근 서울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 계획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DMC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신속한 건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진즉 DMC 랜드마크의 상징성과 가치를 인지한 마포구는 신속한 건립을 위해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 사업으로 지정했다.



지난 1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상암동 소모임에서 DMC 랜드마크 건립 추진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우선, 구는 랜드마크 사업 추진현황을 매월 세심히 점검하고 개발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서울시 유관부서와 수시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DMC 랜드마크는 최초 용지공급 공고 이후 20년 가까이 해당 부지가 방치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사업추진이 오랜 기간 표류하면서 상암동을 비롯한 마포구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다"며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염원과 구의 바람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DMC 랜드마크 추진을 위한 구의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역시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부동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거용도 비율(20% 이하 → 30% 이하) 확대, ▲숙박시설(20% 이상 → 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 → 3% 이상)비율을 축소하고,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총사업비의 10% 이상 → 200억원 이상)을 축소

하여 사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시는 오는 5월 28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경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마포구는 추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암동이 서울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강형구 기자 sidaeseoul@daum.net